

#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 8개월간 개장

## 첫날 총 112척 194명 입어 ... 문어 3,200kg 등 총 3,650kg 잡아 4천763만원 어획고 기록

당초 4월 1일 개장 예정이던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이 어획물 위판 일정 등으로 연기돼 지난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개장에 들어갔다.

첫날 저도어장 입어척수는 A수역 98척 168명, B수역 14척 26명 등 총 112척 194명이다. 어종별로는 자망 22척 42명, 연승 79척 82명, 나잡 5척 51명, 관리선 6척 19명이다.

이들은 오전 5시40분 속초해경 경비함정의 입어점호에 이어 오전 6시10분 출발신호와 함께 일제히 저도어장으로 진입했다. 첫날 어획고는 해삼 100kg 200만원, 미역 200kg 60만원, 멧게 150kg 15만원, 문어 3,200kg 4천488만원 등 총 3,650kg에 4천763만원을 기록했다.

속초해경은 완벽한 어로보호 경비를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과 50톤급 경비정 3척을 배치했으며, 해군함정과 어업지도선 등이 저도어장 주변에서 흑시라

도 있을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속초해경은 저도어장 개장에 앞서 외곽 경계선 부근의 구역을 표시하는 부표를 설치했으며, 이에 앞서 어촌계별로 안전조업과 월선예방에 대한 사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해경은 저도어장 개장기간 중 기상악화(시정 1,000야드 이하, 파고 1.5m이상)때는 입어를 통제한다. GPS미설치 어선도 통제한다. 또 개장기간 중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해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장하는 동해안 최북단 어장은 저도를 기점으로 북쪽으로 300m, 동쪽으로 1,300m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어장면적을 종전 2.2km에서 14.7km로 7.7배 확장했다.

최광호 기자



저도어장 개장 첫날인 지난 4일 고성지역 어선들이 속초해경의 출발신호에 맞춰 일제히 저도어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 체육진흥기금 첫 수혜자 모집

### 고성군 15일 마감...총 48명에 2천만원 지급

고성군은 관내 거주하는 체육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위해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2011년 체육진흥기금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모집한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은 고성군 역사상 처음 지급되는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군비 출연금 5억원과 지정기탁금 등을 모아 지난해 목표액을 달성하고, 올해 우선 전문 체육인재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

초등학생은 20만원씩 17명, 중학생은 30만원씩 12명, 고등학생은 50만원씩 12명, 대학생은 100만원씩 7명 등 총 48명에게 2천만원을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의 자격은 관내 초·중·고·대학교 가운데 전문체육 육성학교 선수다.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내로 둔 전문체육 선수도 해당된다. 향토장학생 및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최광호 기자

선발기준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자로서 전년도 도 단위 및 전국대회 이상 공인된 각종 경기에서 3위 이상 입상실적이 1회 이상인 전문체육선수다. 등위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출해 산출점수가 동점인 경우 상급학생 또는 상위메달 다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고성군홈페이지(<http://www.goseong.org>) 자유게시판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직접방문(군청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관광문화체육과(680-3712)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군은 신청자에 대한 1차 서류 검토 후 26일경 고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결정한 뒤, 이달 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감사의 말씀

인사말씀 올립니다.

항상 귀दै에 평안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4월 2일 저의 여식 강지영 결혼식 때 공사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귀दै의 대사가 있을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4월

신랑 : 이민철  
신부 : 강지영

강안근 · 김정순 올림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자산리 58번지

고성신문 광고문의 ☎681-1666~7